

목포시, 휴업예고 시내버스 정상화 방안 마련 분주

전문가 등 15명 공론화위 구성
준공영제·공영제 도입 용역 착수
전세버스 투입 등 비상수송대책
회사측 "1년 휴업 입장 변화 없어"



목포 시내버스 회사인 태원여객·유진운수가 휴업을 예고해 목포시가 대책마련에 나섰다. <목포시 제공>

목포시가 '시내버스 업체의 1년간 휴업 신청'에 따른 후속대책 마련을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17일 목포시에 따르면 시는 시내버스 업체인 태원여객과 유진운수가 지난달 27일 제출한 오는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1년간 휴업 허가 신청을 반려했다. 대중교통은 공공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운영을 중단하거나 휴업하는 것은 시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며, 향후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유를 들었다.

시는 시내버스 휴업 신청에 따른 대책마련을 위해 버스운영정상화 태스크포스(T/F) 팀을 구성한 데 이어 민간 주도의 '버스운영 공론화위원회'를 최근 출범시켰다.

공론화위원회는 시의회, 시민사회단체, 교통 관련 전문가 등 15명으로 구성됐으며,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합리적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위원회에서는 최종 결정사항을 목포시장에게 권고하며, 시는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시민에게 이를 공개하고 정책 결정에 반영할 방침이다. 또 오는 6월 중 용역을 착수해 시내버스 운송원가 회계 검증, 시내버스 준공영제 및 공영제 도입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여론조사 및 공청회를 열어 시민의 의견을 반영할 계획이다. 대책과 별도로 실제 시내버스 운행 중단에 대비해 전세버스 투입과 택시부제 해제, 승용차 함께 타기 운동 등 비상수송대책 수립도 강구할 방침이다. 하지만 목포시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회사 측에서는 오는 7월부터 1년간 휴업 입장에 변함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우려를 낳고 있다. 목포시 관계자는 "휴업 신청을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고 시내버스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정확하고 면밀하게 진단하고 해결하겠다"면서 "시민의 이동권을 보호하고 일상이 보장받을 수 있도록 버스 휴업사태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목포=박종배 기자 pjb@kwangju.co.kr

해남 농가서 발전 껍데기 두겹 계란 '화제'



해남군에서 껍데기가 두 겹인 계란이 발견돼 화제다. <사진> 해남군 현산면에 거주하는 김영식(54) 씨는 지난 15일 닭장에서 알을 깨내다가 한쪽이 약간 깨져 있는 계란을 발견했다. 김씨는 계란을 찬찬히 살펴보다 껍질 낫았다고 한다. 껍데기가 두 겹이었기 때문이다. '식구들이 먹기 위해 닭 10여 마리를 키우고 있다'는 김씨는 17일 "노른자가 두 개인 계란은 봤어도 껍데기가 두 겹인 것은 보지 못했다"고 신기해했다. 나주에서 산란계 농장을 하는 김모씨는 "닭이 갑자기 낳았거나 심한 스트레스 등을 받으면 알집이 연속해서 내려와 겹치면서 껍데기가 두 겹이 되는 데 이런 경우는 아주 드물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해남군 미래발전 전략 수립 속도...전문가 초청 컨설팅

인구·기후변화 등 6대 핵심과제
정책 제시하고 해결 방안 모색

해남군이 미래 발전을 선도할 전략사업과 정부 정책에 부응하는 현안 발굴을 통한 균형발전 장기 전략 수립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해남군에 따르면 군은 최근 광주전남연구원 조상필 박사를 비롯한 6명의 전문가를 초청, '미래발전 전략사업 발굴 전문가 컨설팅'을 개최했다. 이번 컨설팅은 민선 7기 지역 성장동력이 될 현안과제를 선정하고 장기 발전 방안을 수립하기 위

해 추진하고 있는 해남군 미래 전략사업 발굴의 일환으로 각 분야 전문가를 초빙해 과제 별 안건을 검토하고 쟁점사항에 대해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군은 저출산·고령화 대응 인구 증대 방안과 해양형 공동체 활성화 방안, 기후변화 위기 농업 분야 선제 대응 방안, 탄소중립 전략 방안, 숲·관광자원화·육림 방안, 2030 종합발전계획 핵심 전략 사업 등을 미래 전략사업 6대 핵심 과제로 선정했다. 컨설팅을 통해 인구 증대 방안으로 인구 정책의 목표를 단순한 양적 증가에서 지역 균형 발전과 생활인프라 구축에 초점을 맞춘 정책 전환이 필요하

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 주민참여형 거버넌스 시스템 구축을 통한 공동체 활성화 방안과 농업의 생산에서 유통까지 전 과정에 걸친 탄소저감 실천 과제를 수립하는 선제 대응 필요성도 관심을 모았다. 숲 경관자원화의 경우 탄소흡수원으로서의 산림을 넘어, 맞춤형 숲 경관을 자원화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안했다. 명현관 해남군수는 "한국판 뉴딜 등 급변하는 행정 환경 속에서 장기적 미래 설계에 대한 논의가 이뤄져야 할 시점"이라며 "성장동력 확보의 든든한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kwangju.co.kr

'수선화의 섬' 신안 선도에 활짝 핀 금영화

노랑물결 장관...관광객들 발길

'수선화의 섬' 전남 신안군 선도가 수선화에 이어 금영화의 노랑물결로 장관을 이루고 있다. 17일 신안군에 따르면 지도읍 선도는 섬 전체 모양이 매미를 닮았다 하여 매미섬(蟬島)이라 불리는 인구 200여명 남짓 살고 있는 작은 섬이다. 섬 전체 면적의 10%(8ha)에 전 세계의 수선화 100여종을 심어 2019년 첫해 열린 축제에는 섬 전체 인구의 50배가 넘는 1만2000여 명이 다녀갔다. 2020년엔 '가고 싶은 섬'에 선정돼 주택, 창고 등 모든 시설물에 노란색을 입혀 매년 봄섬 전체가 노랑 물결로 넘쳐나는 획기적인 컬러마케팅으로 전국적인 유명세를 타고 있다. 지난해까지만해도 5월이면 수선화가 지고 섬을 찾아오는 관광객이 줄었지만 올 해는 상황이 많이 달라져 관광객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수선화가 머물던 자리를 지키고 있는 '금영화' 때문이다. 금영화는 캘리포니아 양귀비라고도 하며, 높이 30-50cm로 5월부터 8월까지 꽃이 핀다. 금영화의 '감미로움', '나의 희망을 받아주세요'란 꽃말처럼 코로나19 시대에 희망을 전하는 아름다운 꽃잎에 틀림없다. 봄바람에 하늘거리는 모습이 선도를 찾아온 이들에게 반가움을 표하고, 예메랄드빛 바다와 청아한 보리밭 사이에 웅기종기 모여 있는 금영화는 꽃이 진 수선화를 찾아온 이들에게 따뜻한 봄을 잊게 해 주고 있다. 신안군 관계자는 "선도의 봄은 수선화로 시작해 노랑 물결 금영화로 이어지면서 말 그대로 사계절 꽃피는 섬이 돼가고 있다"면서 "지금 수선화 섬 선도에 가면 노랑 물결 넘쳐나는 금영화 천국을 만나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ee@kwangju.co.kr



신안 선도에 활짝 핀 금영화. <신안군 제공>

영암군 외래어종 퇴치사업 메스·블루길 등 16t 수매

영암군이 내수면 생태계를 교란하는 외래어종을 퇴치하고 토산어종을 보호하고자 수매 사업을 펴고 있다. 17일 영암군에 따르면 2018년부터 외래어종 퇴치사업을 펴고 있으며 올해는 3월과 5월에 16t가량을 수매했다. <사진> 1억1000만원의 예산이 소진 시까지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대상 외래어종은 메스와 블루길로 관내 내수면어업 허가자에게 kg당 4000원에 수매하고 있다. 수매한 외래어종은 비료 또는 사료로 희망하는 업체에 무상 공급한다. 방정재 영암군 산림해양과장은 "내수면 외래어종 퇴치사업으로 생태계를 파괴하는 외래어종의 개체 수도 줄이고, 코로나19로 힘든 어업인들의 소득 증대가 경영 안정을 도모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영암=전봉헌 기자 jbh@kwangju.co.kr

영광군의회 박연숙 의원 저출산 극복 릴레이 챌린지 동참



영광군의회 박연숙 의원이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최근 '저출산 극복 릴레이 챌린지'에 동참했다. <사진> 이번 릴레이 챌린지는 영광군의회 강필구 의원으로부터 이어 받은 것으로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고, 함께 지키고, 함께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가자는 '범국민 포 (4) 합' 뜻을 들고 저출산 극복 메시지를 전했다. 박연숙 의원은 "심각한 저출산 위기 속에 이번 캠페인에 참여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며, 지역사회와 함께 아이를 안전하게 돌보고 키우는 정책을 발굴하고 실천하는데 노력하겠다"며 다음 릴레이 챌린지 주자로 영광농업협동조합 정길수 조합장과 영광군 여성단체협의회 강희화장을 지목했다. 한편 박 의원은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균형제안을 하고 '영광군 공동육아나눔터 지원 조례'를 제정하는 등 인구정책에 관련된 의정활동에 힘쓰고 있다. /영광=이종윤 기자 jylee@kwangju.co.kr

태양광발전소 선착순 분양!!

20년 장기계약으로 안정된 연금식 소득 보장
금융이자소득에 비해 높은 수익률 보장

분양 예정 지역

고흥 / 해남 / 여수 / 순천 / 광양 / 강진
남원 / 영주 / 음성 / 김천 / 천안 등

100kw / 150kw / 200kw / 300kw / 500kw / 600kw / 700kw / 1MW 등

※ 각지역 맞춤형 발전소 가능

● 인허가 및 시공 ● 각 지역 지사장 모집

한일솔라에너지 상담전화 0505-337-3500

대표전화 1522-3097 / FAX 0505-313-3500

본 사 광주광역시 북구 독립로 349(중흥동 665-29)